

신행수기

내 인생의 참스승 <상>

우선주 (43·충북 진천)

우리는 매일 하루를 산다. 어떠한 억만장자나 재력가라도, 커다란 권세의 권력가라도 매일 이틀을 살 수는 없다. 그가 누구이든 무엇이든시간에 눈을 떴을 때 주어지는 하루는 평등하다 하지만,

그 평등으로 시작된 하루가 눈을 감을 때에는 시작할 때와 같이 평등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사람들의 얼굴이 각기 다르듯이 그 하루의 마침도 그러하리라. 벌써 내 인생도 불혹을 훌쩍 넘어 45년

이란 세월이 지났다. 그 오랜 시간의 하루 하루를 언제나와 같이 시작했지만 그 마침은 한 번도 같은 날이 없었던 것 같다. 그 많은 날들 중에 단 하루라도...

내겐 몸서리쳐지게 생각조차 떠올리기 싫은 과거가 있다. 언제부터인가 저녁이면 어둠이 스며들 듯 내 마음에 어둠이 스며들음을 나는 몰랐다.

처음엔 그저 말하기도 싫어지고 사람들과의 어울림도 싫어지고 밖에 나가기도 싫어지더니, 소리도 햇빛도 싫어졌다. 그저 모든 것에서 숨어 버리고만 싶어졌다.

세상 모든 것들이 나를 짓눌러 오는 것만 같아 난 그곳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무척이나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쾌활했던 내가 자폐성 우울증이라니 참으로 믿기 어려웠다.

나라는 존재조차 없애버리고 싶을 만큼 내 숨소리조차도 나를 괴롭혀왔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생명

는가.

겨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난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고 끝도 없이 흐르는 눈물 속에서도 그 증상의 속박을 벗어날 수 없었다. 병원에서 주는 약은 나를 흐느적거리는 연체동물처럼 만들어갔고 손가락 하나 들어 올릴 힘조차 없어 살아있다는 생각조차 할겨운 무력감에 빠져 있거만 했다. 그런 와중에 나는 술에 손대기 시작했다. 약을 먹는 것 보다는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무력감도 사라지는 듯 했고 속박감에서 벗어나 자유로움도 잠시 맛볼 수 있었다.

하지만 난 그로 인해 약보다는 술의 힘을 빌리는 날들이 더 많아졌고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다. 그런 나를 애타게 지켜보던 남편은 결국 의사의 권유로 병원에 입원시킬 결심을 했고 그것이 마음 아팠던 남편은 시누이가 출가해 있는 해인사 약수암으로 가져오게 됐다. 마침 2박3일짜리 어린이 수련회가 있어서 아들을 해인사 수련회에 입



그림 · 김홍인

그렇게 쾌활했던 내가 자폐성 우울증이라니 약보다는 술을 찾게돼...

과도 같은 우리 아들! 그 아이의 존재가 왜 그리 내게 무겁게 짓눌러 오는 무거운 짐인지, 지금 생각하면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 고개를 들 수가 없다.

난 내 아이에게 초등학교 2학년 이후로 김밥을 싸 준 적이 없다. 남편이 이제사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이 소풍 갈 때가 제일 마음 상했다. 혼자 일어나서 김밥도 없이 가방 메고 소풍가는 아이를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견습업을 하는 남편은 견습장을 돌아보아졌기에 새벽에 일찍 나가서 아이 일어날 시간이면 전화로 어린 아들을 깨우고 혹시 못 일어날까봐 자명종을 아들 머리맡에 놓아둔다.

아이는 깨면 혼자 일어나 밥 먹고 혼자 학교에 간다. 그 모습을 바라보아야 했던 남편의 그 참담한 심정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

남편도 아들도 뒤로 한 채 나의 우울증은 점점 더해만 갔다. 한번 시작된 증상은 내 모습을 길거리 노숙자의 모습으로 만들어 버렸다. 머리카락은 신발이 되고 며칠 동안 잠 못 자는 핏발이 선 눈과 움푹 패인 볼, 누가 이런 내 모습을 보고 '우선주'라고 믿었

회시키고 우리 부부는 3박4일 동안 약수암에 머물며 너무도 오랫동안 있고 살았던 평화로움과 따사로움을 맛보았다. 처음 해보는 새벽예배 발원문을 들으며 웬지 모르게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서러움도 슬픔도 아닌 무엇이든 표현할 수도 없는 감정 속에서 부끄럼도 잊은 채 목 놓아 울었다.

몇 년 전 나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 그저 기도하고 매달리는 신앙이 아니라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섭리를 구약과 신약 말씀을 떠나며 열심히 공부했고 직분도 맡아 하나님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한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그토록 존경하던 목사가님 변화하는 모습에 교회를 그만 다니게 되었다. 이후 우울증은 더 깊게 진행됐다. 하지만 성서에 기록된 섭리를 깨우치게 도와준 그 목사님에 대해서는 지금도 감사하다. 시누이인 스님의 스승이신 보선 스님께서 "교회에 다니다면서 어떻게 해인사 수련회에 아이를 보낼 생각을 했느냐?" 하시기에, 이렇게 말했다. "제가 하나님을 믿을지라도 아이가 부처님을 믿었다고 하면 그리 해 줄 겁니다." (계속)

킬레이 수행일기 <상>



김광연 (주)유메코 기술부장

나는 삶에 눈을 뜨게 되면서부터 정신세계에 관심이 깊었다. 늘 정신수행에 뜻을 두며 살다가 30대 중반에 어떠한 계기로 직장을 버리고 본격적인 구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깨달음의 경지를 이뤄야 되겠다는 거창한 목표보다는 나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인생길을 걷겠다는 생각에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는 심정으로 시작한 마음공부였다.

초기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정진하여 심신의 변화를 느끼면서 조금이나마 수행의 성과가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3~4년의 세월을 넘기면서 수행은 진전이 없고 나중에는 수행의 목표조차도 흐려져 시간이 흐를수록 이유 없이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다. 속세를 살 때 보다는 많이 달라진 인생철학을 지니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나을 것도 없는, 조금은 특이한 인간으로 변모되었던 것이다. 마침내 내가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찾아들었지만 돌파구를 모색하

선공부를 내팽개치다니피 했다. 그렇게 1년을 넘게 허송세월 하다 보니 생활고도 해소되지 않을 뿐더러 하는 일은 점점 꼬여만 갔다.

마침내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앞날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는 절박한 상황이 밀려오자, 제정신이 들고 난관을 극복해야겠

정신세계에 관심...구도의 길 선택 별소득 없이 다시 속세로 돌아와 방향

지 못하고 몇 년을 더 허송세월로 보내다 경제문제 등으로 수행을 접고 다시 생업전선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공부에 대한 열망이 다 꺼지지 않은 덕분이었는지 얼마 후 주변 인연으로 우곡선원을 찾게 되었다.

이 곳을 찾기 전까지는, 예전에 접했던 마음공부가 사도인 줄은 전혀 몰랐다. 마음공부는 다 똑같은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슬렁거리면 그것이 최고인 줄만 알았던 것이다. 의도사마 법을 구하던 혼신이 배어있었던 까닭에 참선법회는 참석했지만 출을 뛰어넘는 장엄화 원장님의 설법은 도무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특히 우곡선원의 공부는 주변에서 항상 보아오던 그런 유형의 불교가 아니었다. 인간불사를 주장하는 것처럼 최상근기를 위한 참선공부이기 때문에 선법이 생소한 나로서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었다. 그 후 일주일에 한번씩 포박포박 법회에 동참하다 보니 수개월 후부터는 조금씩이나마 말귀가 열렸다.

그럴 즈음 경제적인 어려움을 먼저 해소하려다 법회에 빠지게 되면서 참

다는 절박한 생각이 들었다. 세속에서의 생활을 원만히 헤쳐 나가지 못하는 부족한 나를 절감하게 되었으며, 경제적인 문제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인생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했던 수행만큼은 더 이상 등한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수행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기로 결심했다. 다시 시작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법회와 '만행수행'을 빠지지 않고 동참하며 수행을 생활의 최우선에 두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결국 모든 문제는 역시 나에게 있었다. 몸과 마음을 고요히 가다듬는 좌선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경제적인 현실에 묶여 고통스럽던 마음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경제문제를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현실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나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인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걱정을 앞세워 몸보다는 최선의 해법을 모색하되 엄격스런 마음을 놓고, 비우고, 버리는데 몰두하였다. 이러한 마음자세로 수행을 시작하자 반년이 흘렀다.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폭풍 담아두었던 감동있는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물세탁)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40,000. 2. 면, 광목(역물, 손염색) 적삼, 바지 100,000 동방, 바지 130,000 두루막 100,000. 3. 면레프사(역물염색)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4. 무명(역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5. 마 · 한국산 100%(역물, 손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막 140,000. 6. 장삼 고급모직 200,000 경남제일모직 250,000. 7. 가사 대가사 150,000 / 반가사 70,000.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대구 중구영역면 (동삼아파트 지하 공방)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이름승복. 전시장: 053-256-0108. 공방: 053-425-4449. 휴대폰: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 (동삼아파트 지하 공방)

당신도 설법을 잘할 수 있습니다.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비유법, 대기설법 <실기훈련 · 설법자료제공>.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과목: ●발성훈련, 표정연기, 설득, 상담기법 ●음성, 태도, 修辭,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연수안내: ▶기간: 2개월 과정 ※수시 접수. ▶장 의: 수요일 - 매주 (수) 오후 2시 ~ 4시, 목요일 - 매주 (목) 오후 7시 ~ 9시. ▶지도교수: 金哲會 박사. ▶장 소: 본 연수원. ※출장 또는 개인지도도 가능합니다. 문의 및 신청: ☎ 02)747-1567 / 02)737-1567, H-P 011)248-1567.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F)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슬라브, 사철,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011-379-0667, 강원도: 010-3044-9708, 경기도: 019-690-4018, 충청도: 011-327-7697, 경상도: 016-9294-8580, 전라도: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두리안(DURIAN).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과일 두리안! 이제 태국까지 직접 가지 않아도 열대지방에서 '과일의 왕'이라는 두리안을 편하고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 두리안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B,C가 풍부하며, 강장효과도 탁월합니다. - 무게: 약 3Kg. - 지름: 20~30Cm. - 원산지: 태국. ※ 태국에서 영하 40℃ 급냉·직송하여 냉장고에 보관중. - 가격: 1개 35,000원, 2개 이상 구입시 개당 30,000원. ※ 택배비 무료 (제주도, 도서지역 제외). = 현재 백화점에서 상태에 따라 50,000원~120,000원에 판매중. 판매 및 문의: 불자기업 향디원. Tel 031)797-1357 / 031)882-1357. H-P 011-474-1345 / 019-229-1345. 입금계좌: 농협 100023-56-156761. 예금주: 조명숙. 전화주시면 두리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